

신석정의 중기시 연구

— 사회참여적인 시를 중심으로

이 길 상 (전주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결론 |
| 2. 위기의식과 사회현실의 수용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신석정 중기시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그 중기시에는 시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시와 목가적인 시가 공존해 있다. 사회참여적인 시들은 8. 15 광복 및 한국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큰 역사적 사건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강화했다. 이를 예증하는 시로서 「꽃땀풀」, 「氷河」, 「烽火」, 「네 개의 움직이는 肖像畫」, 「歷史」, 「歸鄉詩抄」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의 목가적인 시가 중기에 와서 달라진 것은 중기의 목가시가 신석정의 사회참여정신을 수용한 때문이며 그 점에서 그 시들은 초기의 목가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시가 「抒情小曲」, 「너를 두고」, 「어린 양을 데불고」이다. 신석정의 중요한 중기시들은 8. 15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중기시에서 사회참여적인 경향의 시와 목가적인 시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지만 목가적인 시들보다 더 주목해야 할 시들은 사회참여적인 시들이었다. 신석정이 당시의 절망적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 시인이었음을 그 중기시들은 입증하고 있다.

주제어: 역사의식, 8. 15 해방 및 6. 25 무렵의 시, 위기의식, 목가시의 계승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신석정의 중기시 중 사회참여적인 경향의 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신석정 시에서의 중기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로서 그 특징은 사회참여적인 시와 목가시의 공존이다. 이 양면성은 초기의 『촛불』과 『슬픈 목가』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시의 경우 『촛불』의 몇 편과 『슬픈 목가』에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한 시를 제외하고는 두 시집의 전체적인 경향은 목가적이었다. 반면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중기시의 경우 목가적인 시가 수적인 측면에서 줄어들고 사회참여적인 시가 늘어났다. 사회참여적인 시는 「꽃땀풀」, 「三代」, 「氷河」, 「烽火」, 「歷史」, 「움직이는 네 肖像畵」, 「옛 성터에서」, 「歷史」로부터 「歸郷詩抄」, 「港口에서」, 「餘白」, 「旅程」, 「近詠數題」,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30편인 반면 목가적인 시는 「靑山別曲」, 「蝴蝶賦」, 「백목련을 꺾던 밤」, 「나무 등걸에 앉아서」, 「노을 속에서」 등 대략 12편이었다. 신석정의 중기시에서 목가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중기의 작품들은 사회현실을 직시하거나 반영한 시편들이 많았는데, 이 시기의 큰 역사적 사건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과 치참한 동족상잔이 일어난 한국전쟁이다. 신석정의 사회참여적인 경향은 이 두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신석정의 사회참여정신이 참으로 치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8. 15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좌우익의 갈등과 새로운 조국건설 계획의 불확실성 등은 신석정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를 입증하는 작품이 「꽃땀풀」과 「三代」, 「氷河」 및 「烽火」, 「歷史」, 「待春賦」 등이다. 이 기간에 발표된 시들은 8. 15의 민족적 감격이 아니라 겨레의 기억에 남는 과거의

반성 및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계획,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고뇌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8. 15로 인한 민족해방공간이 감격적 공간이기보다는 위기적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신석정이 8. 15 광복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시를 쓴 시인이었다는 것은 그의 일제통치 말기의 체험으로 볼 때 수긍된다. 그는 친일문학지 『국민문학』에서 보낸 원고청탁을 거절했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자 경찰서에서 출두령이 나와 피신하기도 했다.¹⁾ 대부분의 문인과 달리 그는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6. 25는 신석정으로 하여금 조국의 깊은 상처투성이의 역사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극도의 궁핍이라는 애달픈 생활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입증하는 작품이 『歸鄉詩抄』, 『旅程』, 『港口에서』 및 『이야기』, 『餘白』 등이다. 이처럼 신석정에게 8. 15 해방과 관련된 시들이 그 당시 그의 위기의식의 산물이었다면, 6. 25와 관련된 시들은 6. 25가 초래한 위기의식의 산물로 보아야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회적 위기의 해결을 위해 초기의 목가적인 시들이 사회참여정신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으로 계승된 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시가 『抒情小曲』, 『어린 양을 데블고』, 『너를 두고』 등이다. 이 시들의 배경은 초기 목가적인 시들이나 『氷河』에 수록된 『靑山別曲』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목가적이지만 역사의식 또는 역사적 현실감각이 침투한 점에서 초기의 목가적인 시를 발전시키면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후기의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런 특징은 역사적인 큰 사건을 경험한 신석정의 위기의식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신석정 시의 연구에서는 목가적 경향이 농후한 초기시와 사회참여적인 경향의 후기시를 중요시한 나머지 중기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²⁾ 중기시

1) 허소라, 『뭇다 부른 목가-신석정의 생애와 문학』, 석정문학연구원, 2014, 243쪽.

2) 오택근, 『신석정 시 연구-초기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5-30쪽 참조.

김명배, 『신석정의 초기시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 17』, 1985, 37-38쪽 참조.

이건청, 『신석정 초기시의 전원지향』, 신석정 30주기 추모문학계전위원회 편, 『신석정 30주기 추모문집』, 신석정 추모문학계전위원회, 2004, 195쪽.

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평설을 달거나³⁾ 신석정 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에서 다루었을 뿐⁴⁾, 중기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의외로 드물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들, 특히 신석정 중기시 중 사회참여적인 시를 주목하면서 신석정의 시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기시를 위한 텍스트는 물론 『氷河』⁵⁾이지만,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쓸 무렵에 신석정이 쓴 유고시 및 미수록 시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송하선은 『신석정 전집 제 I권』을 정본으로 보고 『유고시집』 및 미수록 작품이 포함된 『신석정 전집 제 II권』을 미완성 작품이거나 아니면 태작들, 곧 시적 완성도, 시적 상상력, 시의 유기체적 구조, 시적 의미망, 시의 음악성 그리고 비유나 상징 등등의 면에서 거칠고 흠결이 많은 작품들이어서 부분⁶⁾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고시집』 및 미수록 시들은 『빙하』에 수록된 시들과 동일한 수준의 작품들이어서 기왕의 신석정 시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완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수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희안, 「신석정 후기시의 시간의식과 현실의식」, 『비평문학 제40호』, 2011, 4-15쪽 참조.

류중하, 「김현승과 신석정의 후기시 비교연구」, 『홍익대 홍익어문연구』, 1984, 11쪽.

3) 정창영, 신석정 30주기추모문학제전위원회 편, 앞의 책.

4) 허소라, 앞의 책, 104쪽.

송하선, 『신석정 시 다시 읽기』, 이회, 2001, 187쪽.

국효문, 『신석정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81-211쪽 참조.

5) 1956년 정음사에서 나온 『氷河』의 경우, 서지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는 「노스텔지아」와 「山山山」이다. 「노스텔지아」 3연의 ‘제비들은 선선히 위험한 스테—지에서’의 ‘선선히’가 「신석정 전집 1」에서는 ‘전선의’로 바뀌어 있다. ‘전선’은 ‘電線’의 한글 표기로 보인다. 「山山山」마지막 연의 ‘山山山’이 『신석정 전집 1』에서는 ‘山山山’으로 바뀌어 있다. ‘山’의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활자 크기를 점점 커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氷河」의 경우 정음사판에서는 ‘氷河’라는 한자 표기와 어울리도록 하기 위하여 ‘水平線’(75쪽)으로 적었는데, 『신석정 전집 1』에서는 그 한자 표기를 한글표기로 바꿔 놓았다.

6) 송하선,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평전』 푸른 사상, 2013.

2. 위기의식과 사회현실의 수용

2.1. 위기의식의 산물 - 8. 15 해방공간의 시

신석정의 위기의식은 일제의 언론탄압이 더욱 심해진 1930년대 후반에 더욱 증폭되었다. 이는 1930년대 말에 산출된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슬픈 구도」, 「房」 등과 8. 15해방 직후에 산출된 「꽃덤불」과 「氷河」, 「움직이는 네 肖像畵」, 「烽火」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겨레의 막다른 생활현실을 다룬 시들로도 입증된다.

신석정에게 8. 15 광복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일제의 악랄한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광복은 자주적인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조건이 따른 것이었고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8. 15 해방공간은 위기의식으로 괴로운 생활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위기의식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거의 성실한 반성과 새로운 조국건설의 계획, 그리고 이를 위한 신념의 확립 등의 문제였다. 신석정의 위기의식은 곧 도래할 난국의 활로를 찾으려는 시인의 역사의식과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의 시 중에서 민족해방의 감격보다 절실한 상념들을 담은 시들이 주목되는데 그 중에서 문인들의 처신에 대한 반성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가 「꽃덤불」이다.

그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꽃덤불」 부분(신석정 전집 I:p.152)⁷⁾

7)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I』, 국학자료원, 2009.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추억을 담은 3연의 내용은 한국문인의 여러 가지 처신 방법이다. 반일적 저항을 위한 망명과 친일적 행동이 대조된다. 따라서 그 시절의 하늘에 ‘오롯한 태양’이 뜰 리가 없다. 게다가 8. 15 해방조차도 ‘오롯한 태양’을 한국민족에게 주지 못한다. 남북이 분단된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겨울밤 달이 차거운 계절’에 살고 있는 셈이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이 비치는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볼 ‘봄’은 멀다는 것이다. 『氷河』에도 해방공간에서 절감한 절망감과 허무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

억만 년 지구와 주고받던
회화에도 태양은 지쳐
얇은 구름의 面紗布를 썼는데
떠나자는 머언 뱃고동 소리와
뚝뚝지는 동백꽃에도
뜨거운 눈물 지우던 나의 벽찬 청춘을
귀대어 몇 번이고 소곤거려도
가고 오는 빗날 역사란
모두가 우리상처 입은 옷자락을
갈갈이 스쳐갈 바람결이어

생활이 주고 간 화상쯤이야
아예 서럽진 않아도
치밀어오는 뜨거운 가슴도 식고
한 가닥 남은 청춘마저 떠난다면
동백꽃 지듯 소리 없이 떠난다면
차라리 심장도 氷河되어

남은 피 한 천년 녹아
철 철 철 흘러고 싶다

— 『氷河』 부분(신석정 전집 I :p.215~216)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Ⅱ』, 국학자료원, 2009.

본 논문에 인용되는 신석정 작품의 출전은 위와 같다. 이하 신석정 작품은 각주를 생략하고 작품의 제목 뒤에 (시집 제목: 쪽수)로만 표기한다.

‘동백꽃’은 『房』을 비롯한 여러 편의 시에서 언급된 정열적인 ‘청춘’이나 생명력의 은유이다. 그 ‘동백꽃’이 ‘빗속에 떨어’지고 ‘파도소리 부서지는 해안에 떨어진다’는 것은 시인의 젊은 생명력이 무참하게 떠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차라리 심장도 氷河되어//남은 피 한 천년 녹아/철 철 철 흘리고 싶다”고 절규한 것은 영영 떠나갈 그 ‘청춘’이 몹시 아쉽기 때문이다. 왜 이런 허무주의적 감상이 초래되었는가? 그것은 “억만 년 지구와 주고받던 회화에도 태양이 지”고 ‘청춘’의 생사가 걸린 빛나야 할 ‘역사’가 ‘갈갈이 찢기’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조국의 역사에 대한 극심한 환멸로 인한 허무의식이 절망의 ‘氷河’를 찾게 된 것이다. 그 정도의 환멸을 초래한 조국은 남북분단과 6. 25를 몰고 왔다.

해방공간의 위기적 상황은 『꽃덤불』과 『氷河』에서뿐만 아니라 『烽火』 등 여러 편에서 나타난다. 신석정이 8. 15 광복과 더불어 안게 된 고민의 하나가 좌우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문제였고, 이를 암시하는 시가 『烽火』다.

어슴발이 들 무렵에
젊은 놈이 찾아와서

“누굴 붙들고 이 좁은 가슴을 터트려 보겠습니까?”
막막한 이야길 듣는 나도
그 젊은 놈에게 송두리 채 붙잡혀 줄 수도 없는
서러운 놈인가 보다.

인젠 동무가 아니면 원수뿐입니다
원수와 동무가 뒤섞여 사는
적막한 적막한 세상이라서
나는 젊은 놈을 따라갈
힘도 여윌는가.

어둔 하늘엔 별도 드문데
불현듯 일어서며 젊은 놈은
가야겠다고 한다.
젊은 놈을 따라나선 나는

“짐승들 요란히 우는 어둔 밤” 하며
내 귀에도 아스므라하니 불러본다.

고개에 이르자 짧은 놈은 기어코
짐승들이 요란히 우는
어두운 속으로 끝끝내 떠나고 말았다.

나는 내 여윈 손아귀에
그 짧은 놈이 남기고 간 체온과 더불어
얼어붙은 내 가슴 저 한구석에 댕기고 간
빨갭게 빨갭게 타오르는 봉화를 본다.

— 『烽火』 전문(신석정 전집Ⅱ:p.318~319)

8. 15 해방공간은 좌우익이 ‘원수’가 아니면 ‘동무’로서 싸우는 세계다. ‘별도 드문’ 어두운 ‘하늘’은 화해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짐승들 요란히 우는 어둔 밤’은 무자비한 우승열패의 원칙만 있는 정글을 암시한다. 화자 ‘나’가 자기를 ‘서러운 놈’으로 여긴 것은 좌우익의 싸움에 참가한 ‘짧은 놈’과 달리 정치적 이념 확립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편에도 과감하게 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짧은 놈’의 감화로 인한 ‘투쟁의지’(‘烽火’)만은 뜨겁다는 것이다. 『烽火』는 정치적 이념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을 이야기 시 형식으로 담아낸 점에서 감동을 준다. 신석정은 『나는 시를 이렇게 생각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의 감흥은 우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도 아니요 항상 우리 뜨거운 가슴에서 살고 부단히 움직이는 역사와 더불어 성장하고 응결하여 탄생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역사성을 망각하고 시를 자연발생적인 것처럼 사유하기 때문에 시의 목적의식을 부정하느니보다는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는 것을 그들은 시에 대한 유일의 예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 없는 잠꼬대이라?⁸⁾

8)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나는 시를 이렇게 생각한다』, 『신석정 전집Ⅴ』 국학자료원, 2009, 355쪽.

인용을 통하여 신석정이 ‘부단히 움직이는 역사’에서 암시된 ‘목적의식’이 있는 문학을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 문학과 목적의식이 있는 문학은 일제 강점기의 ‘카프’ 문학의 전략과 관련된 용어였다. ‘카프’는 최서해나 박영희의 소설들이 속한 소위 ‘신경향파’ 작가들의 자연발생적인 프로문학에서 마땅히 목적의식이 있는 프로문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⁹⁾ 따라서 신석정이 ‘목적의식’이 있는 시를 지향한 것은 ‘카프’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된다. 『烽火』가 지향한 것도 사회주의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다. 『烽火』는 사회주의에 공감하면서도 그 이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회주의자의 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화자의 고민이 그 주제이다. 이와 같은 뚜렷한 한계는 있을지라도 이 시는 신석정이 정치적 참여의지를 강하게 암시한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꽃덤불』, 『氷河』, 『烽火』 등이 말해주듯이 이 시들의 주제와 분위기는 매우 절망적이고 어둡다. 그러나 신석정은 그 역사에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氷河』와 매우 대조적인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의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과 기대는 『歷史』뿐만 아니라 『待春賦』, 『움직이는 네 肖像畫』로도 입증된다.

1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린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자작나무 허울 벗 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歷史』 부분(신석정 전집 I:p.247~248)

9) 김재용,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447쪽 참조.

『歷史』에서 중요한 자연사물은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이다. 그런 꽃을 피어나게 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은 ‘우주의 순리’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 뜻은 2연을 통하여 달라진다. ‘달래꽃’에서 ‘위대한 역사와 힘’을 통찰한 때문이다. 들판의 하찮은 ‘한 송이의 달래꽃’에서 그 ‘위대한’ 것을 통찰하는 안목은 신비주의의 안목이 아니라 역사적 위기에서 활로를 발견하는 예언자로서의 시인의 안목이다. 그 활로야 말로 ‘애인의 고운 청춘’이 화자와 함께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애정을 보장해주는 길”이다. 『歷史』에서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길은 화자가 ‘애정’을 기울인 앞이 ‘트인 길’이며 그 길을 마련한 매개체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이다. 그 ‘꽃’은 이름 없는 민중 또는 서민의 상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역사와 힘’은 피압박 민중의 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힘’으로 비극적인 죽음의 역사는 희망찬 생명의 역사로 전환될 수 있다. 『歷史』는 위기에 처한 시인의 역사식과 사소한 것에서도 우주적인 큰 세계를 통찰하는 안목이 결합되어 생산된 작품이다.

『歷史』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달래꽃’의 생성에 작용한 힘에는 두 가지 의미 층이 있다. 표층적 구조의 차원에서 그것은 자연에 작용하는 우주적인 힘의 뜻이지만, 심층적 구조의 차원에서 그것은 위대한 역사의 힘이라는 뜻이다. 물론 화자에게 보다 소중한 것은 역사의 힘이다. 신석정의 그런 역사 의식은 지난 봉건시대만이 아니라 조국의 현대사도 반성하도록 한다. 『歷史』와 더불어 그것을 입증하는 시가 『待春賦』이다.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 중략 -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가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 『待春賦』 부분(신석정 전집 I:p.231~231)

이 시에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역사가 대조적으로 암시되고 있고 그 점에 신석정의 고민이 있다. 『待春賦』에서 제목이 암시한 대로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는 시인의 심정이 뜨겁게 전달된다. ‘우수’도 ‘경칩’도 아직 먼 겨울임에도 ‘봄’이 벌써 숨 가쁘도록 감지되는 것은 그만큼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봄’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산’은 ‘산대로 첩첩’하고 ‘물’은 ‘물대로’ 합류하는 것은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고, 것처럼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모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수 없다. 봄을 기다리면서 그 ‘봄’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정은 ‘나무’와 ‘짐승’, ‘산’과 ‘물’처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우리도’라고 말하는 자기모순을 피하지 않는다. 엄혹한 난국(“겨울“)을 초극하기 위해서다. ‘우리’라는 인간집단도 ‘나무와’ ‘짐승’ 또는 ‘산’과 ‘물’의 융합되듯이 한 공동체로서 융합되기를 바란 대목에서 그의 동양적 인생관과 민족 통합의 염원이 합류한다. 『歷史』와 『待春賦』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가 『움직이는 네 肖像畫』다.

“인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인민이 알아야 할 시에

무슨 화려한 시어가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
절름발이 아우를 등에 업고 38선을 넘어왔다는
젊은 시인의 날카로운 말이다.

“여보!
시니 그림이니 하는 사치품보다
우리민에게는 한 술의 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와 그림이 꽃필 수 있는 나라를 먼저 세워야만 하겠다.”는 것은
젊은 경제학자의 펄펄하는 말이다.

모스크로 가겠다는 한사코 모스크로 가겠다는
바사로프를 닮은 젊은 과학자는
이미 마음은 눈 덮인 西伯利亞를 기차로 달리고 있었다.

마주 바라보는 네 얼굴에
않는 조선이 가로놓여 있다
마주 바라보는 네 얼굴의 까만 눈에 빛나는 조국이 멀리 있다.

— 『움직이는 네 肖像畫』 부분(신석정 전집Ⅱ: 313~314)

이 시에 등장시킨 인물이 경제학자와 과학자와 화가, 및 시인인데 그 ‘시인’을 ‘38선을 넘어왔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신석정은 자기와 같은 ‘시인’을 ‘38선을 넘어왔다’고 말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의지를 암시한 것이다. 그들이 ‘질화로’를 둘러싸고 앉아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들이 마주 바라보는 ‘네 얼굴의 까만 눈에 빛나는 조국이 멀리 있다’고, ‘조국’이 ‘빛나는 조국’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그 ‘조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다. 화자는 ‘낡은 내 얼굴’이 암시하듯이 노인이다. 그의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가 바로 조국의 장래에 대한 기대다. 이 시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눈덮인 西伯利亞’에서 ‘기차’로 “모스크로 가겠다는 한사코 모스크로 가야겠다”는 ‘바사로프’를 닮은 ‘과학자’다. 물론 ‘바사로프’는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과학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그는 모든 기성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자일 수는 없다. ‘바사로프’는 허무주의

를 떨쳐버리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할 ‘젊은 과학자’의 은유다. 그는 신석정이 기대하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다.

신석정에 대한 투르게네프의 영향과 관련하여 최명표는 ‘바사로프’와 같은 과학자와 ‘인사로프’ 같은 독립투사가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분담한 ‘시대적 과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인사로프와 바사로프는 질화로를 매개로 교차 출현하면서 해방 전후의 신석정 시에서 정치의식을 노출하도록 추동하였다. 그는 두 주인공이 혁명적 열정을 복사하여 ‘나라 찾기’와 ‘나라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업에 반응한 것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신석정에 대한 투르게네프의 영향이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신석정이 투르게네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을 입증하는 시가 「방」과 ‘인사로프’의 동지이자 애인인 ‘엘레나’를 언급한 「별리부」(1941), 그리고 ‘바사로프’를 등장시킨 「움직이는 네 肖像畫」(1947)이다. 신석정에 대한 투르게네프의 영향은 막내딸 家名을 ‘에레나’로 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너를 두고」 및 「旅程」에서 ‘에레나’¹¹⁾를 언급한 것도 투르게네프의 지속적 영향을 말해준다.

2.2. 위기의식의 산물 - 6. 25 및 생활현실의 반영

신석정의 중기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전쟁과도 관련된 그의 위기의식이 서민층의 궁핍한 생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궁핍한 생활은 한국전쟁 같은 난리가 초래하기 마련인 것으로서 극소수의 권력층과

10) 최명표, 「투르게네프 수용과 시세계의 변화」, 『해방기 시문학 연구』, 박문사, 2011, 199쪽.

11) 다음이 ‘에레나’와 남자 친구가 나눈 대화의 일절이다.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헤서라는 말은 단지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그런 말은 정말 위대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 대화를 참고했을 때 ‘에레나’는 애인의 조국 불가리아의 민족해방운동을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투르게네프, 「전야」, 고석구 역, 『부자, 전야, 첫사랑』 정음사, 1974, 227쪽.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 소시민의 몫이었다. 그들은 잔혹한 전쟁의 피해자요, 전쟁은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의 피해자다. 이는 평소에 정치와 그 억울한 피해 같은 문제에 민감했던 신석정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그런 생활현실이 반영된 작품들은 「歸鄉詩抄」, 「이야기」, 「港口에서」, 「旅程」 등이다.

술 회사 앞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 쇠자라기와 술 찌경이를 얻어가야 하기에 부세부세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차표 사듯 늘어서서 꼭 잠겨있는 술회사 문이 열리기를 천당같이 기다리고 있습데다

— 「歸鄉詩抄」 부분(신석정 전집 I: 167~168)

신석정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투로 주제를 다소 유머스럽게 전개한다. 화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정도로 동정적이다. 가령 ‘술찌경이’를 얻기 위하여 ‘술회사 문’을 ‘천당’의 문처럼 여기고 ‘쌀겨 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심정이 그 예이다. 농민의 생활현실에 대한 관심이 그처럼 극단적인 것은 화자가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작중사건에 대응한 때문이다. 고향의 이런 극빈촌 풍경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주받은 듯한 마을 사람들의 ‘노란 얼굴들’과 ‘부세부세한 얼굴들’이 말해주는 생활현실과 그 냉철한 묘사가 환기하는 말세적 분위기다. 시인의 위기의식은 그런 현실을 관찰하는 리얼리즘의 정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목가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이야기」에서도 농민의 밑바닥 생활현실이 신랄하게 묘사된다.

옥 같은 서리쌀밥에 저리지를 감아 한 사발만 먹고뜨다던 돌쇠엄마는 해산한 뒤 여드렐 꼬박 감자순만 먹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중략 -

하늘이여

피가 돌기에 마련이면
어찌 독새기를 먹어야 하는 가뭄과 농토를 앗아가고 쌀겨를 먹이는 물난리
와 자맥을 먹는 벼이삭에 몸쓸 바람을 보내야 하는가

— 「이야기」 부분(신석정 전집Ⅱ:p.187~188)

평범한 농민 ‘돌쇠엄마’에게서 ‘해산’의 기쁨을 앗아간 극도의 가난에 대한 저주가 인용문의 저변에 숨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 ‘가뭄’과 ‘물난리’ 등으로 농민을 괴롭히는 ‘하늘’을 원망하고 ‘오는 봄을 근심하는 마을 아낙네’의 서글픈 ‘이야기’가 오늘도 내일도 펼쳐가는 한 “지구는 영원히 아름다운 별일 수 없다”고 고발하듯이 말한다. 결국 마을 농민의 ‘이야기’는 오직 절망적인 생활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가난한 서민층의 생활현실과 그 고난은 「港口에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네가 떠난 항구에
오월바람이 설렌다

머리카락을 날리는 젊은 아낙네들은
베피떡이랑 땀뿌라랑 소주병을 늘어놓고
벧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꼬박고박 기다리고 있는 항구

가대기의 뒤를 따라다니는 발 벗은 아이들은
구호약곡의 가마니에 쭈시 알맹이가 빠지면
병아리처럼 주어서는 차대기에 넣는 항구

Singoara같이 사랑하는 이의
성한 피가 몹시는 먹고프다는 그 백남 간은 여인도곤
아낙네와 발 벗은 어린 것이 더 안쓰러운 항구

오월 바람 설레는 항구에
멀리 떠난 너를 생각하는 내 눈시울이 뜨겁다

— 「港口에서」 전문(신석정 전집Ⅰ: 169)

『항구에서』는 한국전쟁이 초래한 곤궁한 서민층의 생활상을 취급하고 있다. ‘뱃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사에 매달린 ‘아낙네들’과 ‘구호양곡’에서 빠져 나온 ‘쭈시 알맹이’를 ‘병아리’처럼 줍는 ‘아이들’과 ‘Singoara’에 대한 시인의 시선은 지극히 냉철하다. ‘Singoara’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애인의 ‘성한 피’를 먹고 싶어하는 ‘Singoara’처럼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싶어도 ‘머리칼’을 사나운 ‘오월 바람’에 맡긴 채 가난 때문에 발 벗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아낙네들’의 사정, 즉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 서민층에 섞여 살아야 하는 상황을 시인은 평범한 일상사로 보아 넘기지 않는다. 신석정은 이 시에서 서민층의 생활상을 섬세하고 냉철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대조적인 이미지나 현실 곧 ‘아낙네’의 영혼의 상징인 ‘머리칼’과 무정한 ‘오월 바람’, ‘Singoara’의 로맨틱한 꿈과 ‘아낙네’의 곤궁한 삶, 순진한 ‘아이들’과 그들을 압박하는 가난 등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각박한 생활에 매달린 아낙네들을 통해 환기된 위기의식은 전쟁으로 인한 생활고를 다룬 『旅程』에서도 볼 수 있다.

8. 15 해방 직후, 좌우익의 갈등과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시련은 신석정에게 역사적 통찰과 과거의 성실한 반성을 통해 사회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바꿔 말하면 분열된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歷史』, 『움직이는 네 肖像畫』, 『待春賦』 등에서 언급된 민족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사건, 곧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및 그 후유증 같은 사건을 그는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역사적 사건들의 충격은 서민들의 삶을 직시하는 동시에 그런 현실에 대한 고뇌와 참여의 의지를 시에 담도록 했다. 이를 예증하는 작품이 『歸鄉詩抄』, 『이야기』, 『港口에서』, 『여정』 등이다. 비록 이 시기에도 『靑山別曲』, 『蝴蝶賦』, 『나무 등걸에 앉아』, 『노을 속에서』 같은 목가적인 시들을 쓰기는 했지만 중기의 목가시는 초기에 비해 수적으로도 줄어들었고 그의 중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氷河』, 『待春賦』, 『歷史』, 『歸鄉詩抄』, 『港口에서』보다 훨씬 낮았다.

2.3. 목가적인 시의 발전적 계승

신석정 시의 중기에 산출된 목가적인 시는 여러 편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시와 비슷한 경향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목가적 경향으로 한정해서 분석된 시 중의 하나가 『抒情小曲』이다.

이토록 숨이 자꾸만 가쁜 것은
어디 산이 높아서만 그런 것도 아니며

이속한 밤을 산짐승처럼 쏘다니는 것이
어쩌면 이리도 즐거운 것일까?

얽은 구름 사이 내다보는 별들도
오늘 밤엔 모두 우릴 위해서 반짝이거늘

산같이 첩첩히 쌓인 우리 빛나는 설계를
밤새워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싶고나

— 『抒情小曲』 전문(신석정 전집 I: 237)

이 시가 초기의 『靑山白雲圖』나 『氷河』에 수록된 『靑山別曲』 및 『蝴蝶賦』 같은 목가시와 다른 것은 이 시의 주제에 시인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 침투된 때문이다. 『抒情小曲』에서는 먼저 시적 화자가 문제가 된다. 목가적인 시의 화자는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이지만 이 시에서 주인공을 겸한 화자는 3연과 4연에서의 ‘우리’다. 1연에서 언급된 ‘우리’의 ‘가쁜 숨’은 높은 ‘산’에 연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 추구에 열중한 때문인데, 그 목적은 4연의 ‘빛나는 설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한 열중(‘쏘다니는 것’)이 몹시 ‘즐’겁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것이 괴로운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얽은 구름’ 사이의 ‘별들도’ ‘반짝이’며 ‘우릴’ 격려하는 것이다. 마지막 연의 ‘첩첩’한 ‘산’은 몹시 어두운 시대 상황보다는 ‘첩첩’하게 가려진 비밀의 은유로서, 여기서는 ‘설계’를 하는 우리

의 활동을 수식하지만 ‘우리’가 굳이 ‘밤새워’ 토론(‘조곤조곤 이야기’)한 그 ‘설계’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빛나’는 것이라고 말한 그 ‘설계’는 조국의 광복을 더욱 빛낼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抒情小曲』의 ‘산’은 한가로운 동양적 풍경이 아니라 ‘설계’의 실현을 위한 ‘산’ 같은 기개의 은유인 것이다. 이 시의 또 다른 특징은 어조에 있다. ‘그런 것도 아니며’, ‘이리도 즐거운 것일까’, ‘이야기하고 싶고나’로 입증되듯이 친근한 대화체다. 이는 민중을 독자로 삼은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抒情小曲』에서 호소의 대상은 피압박민중이다. 신석정은 이 시에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의 의지를 잠복시킴으로써 종전의 목가시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다.

「너를 두고」에서의 몽환적 배경도 목가적이다.

분주히 쏘다니는 삭막한 거리에는
 봄 머금은 나무도 없고 동백꽃도 없고
 가는 곳마다 에레나는 많아도
 아무데도 에레나는 없더라

잠결에 들려오는 밤차 소리에
 어렴풋이 열리는 먼 고향 하늘이랑
 구름이 자주 어루만지는 푸른 산들이랑
 새같이 지출대는 네 목소리여……

햇볕이 다양한 창 옆에
 그 새빨간 동백꽃을 두고
 에레나 너를 두고 내 여기 있다

— 「너를 두고」 부분(신석정 전집 I: 158)

‘구름이 어루만지는 푸른 산들’은 『촛불』 시절의 『청산백운도』의 마지막 연인 “내 몸이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은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를 바로 상기시키는 목가적 풍경이요, 그 풍경이야말로 동양

인의 유토피아적인 고향이었다. 따라서 이 시는 『靑山白雲圖』 또는 『氷河』에 수록된 목가적인 시 『靑山別曲』과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이 시의 작중 현실은 목가적이지 않다. 화자에게 이 나라(‘거리’)는 희망찬 미래(‘봄’)가 없어서 ‘삭막’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질없이 ‘에레나’를 만나고 싶어진다. 신석정의 초기시 『房』에 등장하는 불가리아의 독립 투사 ‘인사로프’의 동지이자 애인인 그녀(‘에레나’)를 이 시에서도 언급한 것은 ‘봄’을 앞당길 ‘투사’가 절실하게 요망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에레나’도 결국 환상에 지나지 않아서 화자는 아무리 ‘새빨간 동백꽃’이 유혹적으로 피어날지라도 ‘에레나’는 닿을 수 없이 멀리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목가적 풍경은 비현실적인 환상으로서 그리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작자는 ‘동백꽃’ 같은 ‘에레나’를 통하여 6. 25와 관련된 역사적 위기를 초극하려는 의지의 좌절을 독자가 절감하게 하고자 했다. 『抒情小曲』 계열의 또 하나의 시가 『어린 양을 데불고』이다.

어린 양을 데불고 내가 사는 곳은
호반의 성근 숲길을 거쳐
다양한 햇별이 분수로 쏟아지는
푸른 언덕 근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 중략 -

어린 양을 데불고 내가 사는 곳은
별들이 나직이 옛이야기 하는 곳
피묻은 역사도 죄도 별도 없는 곳
그러한 새로운 풍토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질푸른 하늘에 매달린 지구에서
이주 머언 緯度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어린 양을 데불고』 부분(신석정 전집 I : 227~228)

인용에서 어떤 잔혹한 ‘역사’도 ‘죄악’도 없는 목가적 이상향의 풍경(‘새로운 풍토’)이 묘사되고 있지만 이 역시 화자의 로맨틱한 몽상이었음이 이 시의 마지막 연에 의하여 입증된다. 만일 화자가 언급한 그 이상향이 언젠가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위치한 ‘緯度’가 ‘아주 머먼’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강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괴물은 역사’는 다름 아닌 ‘지구’에 만 속해 있다는 말이다. ‘지구’는 순진무구한 ‘어린 양’과 함께 찾아가고 노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 양을 데블고」는 목가시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氷河』에 수록된 목가적인 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 「靑山別曲」과 「蝴蝶賦」, 「나무 등걸에 앉아」 같은 문자 그대로의 목가적인 시와 인류의 역사나 생활현실과 밀착된 역사 의식과 현실인식을 통하여 목가시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抒情小曲」, 「너를 두고」, 「어린 양을 데블고」 등이다.

3. 결론

신석정의 중기시의 특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로 『빙하』에 수록된 중기시는 8. 15 해방과 6. 25라는 큰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8. 15광복이라는 감격적 사건을 무색하게 만든 남북분단과 좌우익의 갈등, 그리고 6. 25가 초래한 처참한 동족상잔과 거래의 굶주림은 시인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8. 15 및 6. 25와 관련된 역사의식과 서민층 생활현실을 반영시킨 신석정의 중기시는 그 위기의식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사회참여적인 시와 목가적인 시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지만 중기시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시들은 사회참여적인 시들이었다. 또한 초기의 목가시를 발전시킨 시들도 사회참여정신을 수용해 계승시킨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실인식과 위기적 상상력의 덕택으로 그 시들에 구체적인 양상과 시대와 직결된 현실감이 절실하게 부여될 수 있었다. 중기시를 쓰게 만든 신석정의 위기의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절망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조국과 서민층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연대적 공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편의 중기시들에서 민족적 시련을 상징하는 말인 ‘역사’와 더불어 절망의 초극을 상징하는 말인 ‘봄’이 초기시 및 후기시에서와는 달리 자주 언급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 논문에서 사회참여적인 시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I』, 국학자료원, 2009.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II』, 국학자료원, 2009.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III』, 국학자료원, 2009.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IV』, 국학자료원, 2009.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V』, 국학자료원, 2009.

2. 단행본 및 논문

- 강희안, 「신석정 후기시의 시간의식과 현실의식」, 『비평문학 제 40호』, 2011, 4-15.
김명배, 「신석정의 초기시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 17』, 1985, 37-38.
국효문, 『신석정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8.
노자, 남만성 역, 『老子 道德經』, 을유문화사, 1970.
류중하, 「김현승과 신석정의 후기시 비교연구」, 흥익대 흥익어문연구, 1984, 11.
백철, 『한국신문학 발달사』, 박영사, 1975.
신현락, 『한국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화사, 1988.
송하선, 『신석정 평전-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푸른 사상, 2013.
——, 『신석정 시 다시 읽기』, 이회, 2001.
오세영, 「현실인식과 그 부정의 변증법」, 석정시인 탄생 기념 심포지엄 발췌 논문, 2007.
오하근, 「신석정 초기시의 반목가적 시어들」, 『석정문학』, 2009 겨울, 석정문학회, 2009.
오택근, 「신석정 시 연구-초기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건청, 『신석정 초기시의 전원지향』, 신석정 30주기 추모문학제전위원회
편, 『신석정 30주기 추모문집』, 신석정 추모문학제전위원회, 2004.
- 장자, 우현민 역, 『莊子』, 박영문고, 1976.
- 최동호, 『산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하나의 道에 이르는 詩學』, 고
려대학교 출판부, 1997.
- 최명표, 『투르게네프 수용과 시세계의 변화』, 『해방기 시문학 연구』, 박문
사, 2011.
- 허소라, 『못다 부른 목가-신석정의 생애와 문학』, 석정문학연구원, 2014.

【Abstracts】

The Study of the Middle Period Poetry of Sin-sukjeung

- Centering on the Poems That Participate in Social Affairs

Lee Kil-sa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tensively the special feature of the middle period poetry of Sin-sukjeung.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poetry is the coexistence of the poems in which the poet participate in the problems of the social or political affairs and the idyllic poems. The former is connected closely with the 1945 Liberation from the colonial rule of Japan and the Korean War, those very important events intensified the poet's concern in the social and political affairs of that time which found expression in such poems as The Gracier, A Flower Bed, The Four Moving Portraits, The Beacon, A History, The Poetical Note on Homecoming, etc.

We find in the latter a change in the treatment of the subject which marries the idyllic element with the poet's social or historical consciousness caused by his intense sense of crisis that is the result of painful facts of the period of the 1945 Liberation and the wartime society which found expression in such poems as A Lyrical Poem, We are Distant from Thee, and In Company with the Little Sheep. But the former is more meaningful and important than the latter in the poetical world of Sin-sukjeu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important poems of the middle period of Sin-sukjeung is the product of that sense of crisis which does not submit to the desperate situation in order to look forward to hopeful future of the motherland people.

Key words: historical consciousness, 1945 Liberation poems, the Korean War poems, sense of crisis, new idylls

이 논문은 2016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19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